<要 約>

Ⅰ. 업종별 비용 구조 현황

○ 96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금융 비용, 환차손, 연료비 중에서 매출액 대비 비중이 제일 큰 부문은 금융 비용임
- 금융 비용은 제조업 매출액의 4.3% 정도이며, 환차손과 연료비는 각각 매출액의 0.4% 및 0.7%를 차지함
- 기타 비용 구조를 보면 제조업 전체로 볼 때 재료비 48.3%, 노무비 7.9%, 경비 17.6% 등으로 조사됨

Ⅱ. 비용 상승 요인에 따른 업종별 영향 평가

○ 98년 금리, 환율 및 국내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은 16조 6,302억 원에 이름
- 추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의 98년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 비용 등 총 비용은 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96년 19조 3,700여 억 원에 비해 무려 86%가 증가한 것임
- 추가 비용 부담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전체의 47.3%에 달함
- 추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업종은 전자 산업으로 3조 631억 원, 가장 작은 업종은 기계 산업으로 6,170억 원으로 나타남

○ 금리는 98년 연평균 18% 정도로 전망돼 96년 11.9%에 비해 51.3% 상승했음. 이로 인한 제조업 전체의 금융 비용 상승 효과는 96~98년 사이에 금액 기준 7조 8,662억 원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는 화학 산업이 1조 813억 원, 자동차 산업이 7,958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98년 연평균 환율은 1415원/달러로 96년 804.4원/달러에 비해 75.9%가 평가절하되었고, 환차손은 제조업 전체 기준 6조 2,2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 환차손이 가장 큰 업종은 외화 부채가 많은 전자 산업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원화 기준 2조 7,621억 원 정도임

○ 98년 국내 유가는 경유와 B-C유를 기준으로 96년에 비해 95.1%가 상승했고, 제조업 전체의 연료비 추가 상승분은 2조 5,3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연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화학 및 정유 산업은 국내 유가 상승으로 각각 4,662억 원, 3,023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임

Ⅲ. 98년도 업종별 매출액 전망 및 비용 상승 영향

○ 98년 제조업 전체 매출액은 96년 대비 25.9% 증가한 453조 원 정도로 추정됨

- 98년 제조업 전체 내수 및 수출의 매출 증가율은 96년 대비 각각 2.1%, 96.2% 정도로 추정됨
- 전업종에 걸쳐서 내수는 둔화내지는 감소, 수출은 환율 상승에 따라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됨
- 업종별로는 내수 가격이 상승한 정유 산업이 54.4%로 가장 높고, 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 산업 44.1%, 화학 산업 43.8%, 섬유 산업 42.6%, 조선 산업이 35%로 높은 매출액 증가가 예상됨
- 반면, 내수 비중이 높은 철강 24.6%, 기계 15%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고 내수가 크게 감소한 자동차는 매출액이 96년에 비해 4.4%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98년 예상 매출액 대비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의 비중은 96년의 5.4%로부터 7.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는 98년 매출액은 96년 대비 25.9%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 비하여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는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용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수 부진이 예상되는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 96년에 비해 매출액 대비 추가 비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채산성 악화 정도가 제일 심할 것으로 보임
- 반면에 비용 상승 요인도 크지만 내수 가격이 상승한 정유나 수출 증가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화학, 전자 업종은 채산성이 호전될 것으로 보임

Ⅳ. 시사점 및 대책

○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기준 수출 매출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금융 비용 상승, 환차손, 국내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요인이 커 환율이 안정되어 있던 96년에 비하여 더많은 업종에서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즉, 98년 매출은 25.9% 증가가 예상되는 데에 비하여 금융 비용, 환차손, 연료비 비용은 86%나 증가해 매출에 비해 증가율이 3.3 배에 이름
- 특히 금융 비용, 환차손 등 영업외 비용의 증가가 채산성 악화의 주요인임

<업종별 금융 비용, 환차손 및 국내 유가의 영향 정도>

	금융 비용	환차손	국내 유가
섬유	■	○	○
정유	○	■	■
화학	■	○	■
철강	○	○	○
기계	△	△	○
전자	△	■	△
자동차	■	○	○
조선	○	○	△

주: ■는 영향이 매우 큼, ○는 영향이 큼, △는 영향이 작음

○ 전업종에서 추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 효율적인 조직 구축, 경비 축소 등 비용 절감 노력을 배가해야 함

○ 업종별로는 채산성 악화의 요인이 다름에 따라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

- 금융 비용 상승 요인이 큰 섬유나 화학, 자동차 업종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 원금의 조속한 상환 대책을 수립해야함
- 정유, 전자 등 환차손 비용 상승 요인이 큰 업종은 자산 매각, 수출 대금을 이용한 부채 결제 등으로 외화 부채의 조속한 상환 대책이 필요
- 연료비 비중이 높은 정유나 화학 업종은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저에너지 효율 공정 개발 등 에너지 사용 절감 대책 수립 필요
- 그러나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 전자 등 산업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 확대 필요

Ⅰ. 업종별 비용 구조 현황

○ 96년 기준으로 금융 비용, 환차손, 연료비 중에서 매출액 대비 비중이 제일 큰 부문은 금융 비용임

○ 제조업 전체의 금융 비용 부담률은 매출액의 4.3% 정도이고, 금융 비용 부담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화학 산업으로 5.9%이며, 가장 낮은 업종은 전자 산업으로 2.2%임

○ 제조업 전체의 환차손은 매출액의 0.4% 수준이나, 시설 투자에 따른 외화 부채가 많은 정유 및 조선 산업이 각각 제조업 전체의 4 배, 2 배 수준임

○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 대비 연료비 비중은 0.7% 정도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인 화학 산업, 정유 산업이 각각 1.4%, 1.3% 정도이고, 가장 낮은 업종은 전자, 자동차, 조선 산업임

○ 제조업의 업종별 비용 구조를 보면 재료비 48.3%, 노무비 7.9%, 경비 17.6% 등으로 조사됨.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정유 산업(58.3%), 노무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조선 산업(12.6%), 경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섬유 산업(26.7%)으로 나타남

1. 업종별[1]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 비중

금융 비용 부담률이 제일 높은 업종은 화학 산업이며, 제일 낮은 업종은 전자 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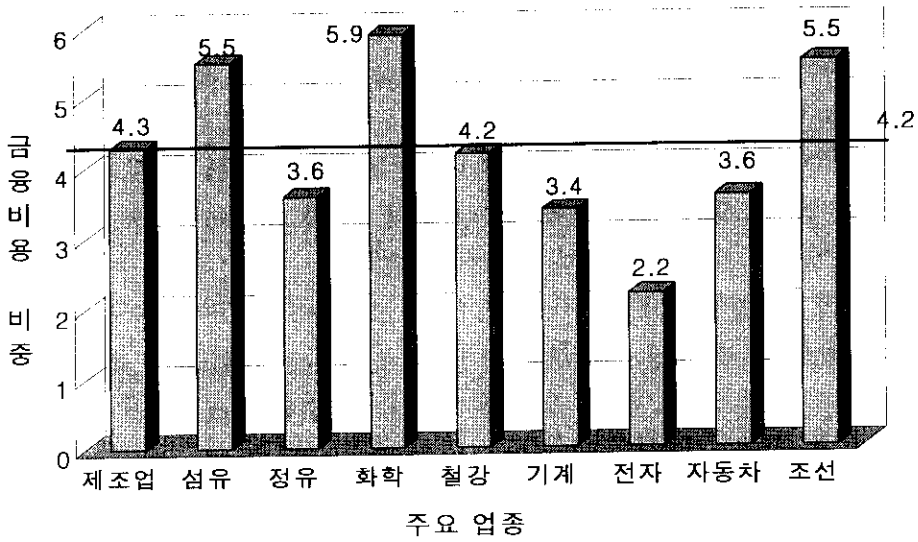
○ 96년 기준으로 제조업 전체의 금융 비용은 매출액의 4.3% 정도임

- 금융 비용 비중이 제일 높은 업종은 화학 산업으로 5.9%이며, 그 다음으로 섬유, 조선 산업이 각각 5.5%임
  - 이는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투자로 인해 금융 비용을 他산업에 비해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기인함

1) 업종은 "신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정유는 석유 정제품, 화학은 화합물 및 화학 제품, 철강은 제1차 철강, 기계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는 전자관 및 기타 전자 부품, 자동차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조선은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을 의미함

- 금융 비용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전자 산업으로 2.2% 정도임
- 그밖에 정유, 철강, 기계, 자동차 산업의 금융비 비중은 3.4~4.2%임

<96년 업종별 매출액 대비 금융 비용 비중 비교>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8
주: 1) 금융 비용=지급 이자와 할인료+회사채 이자-수입 이자
2) 굵은 선은 조사 대상 산업의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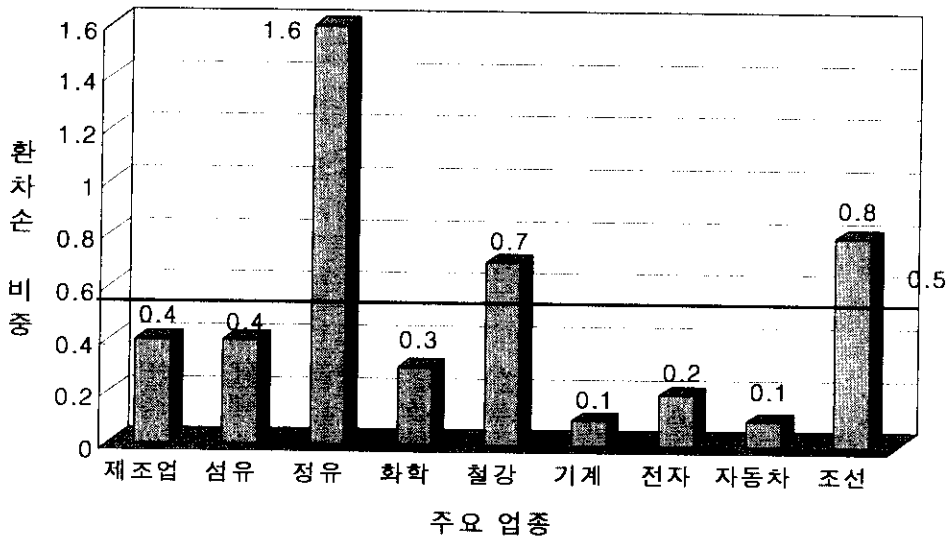
환차손이 제일 많은 업종은 정유 산업이고, 제일 적은 업종은 기계와 자동차 산업임

○ 제조업 전체의 환차손[2]은 매출액의 0.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환차손이 가장 큰 업종으로는 정유 및 조선 산업으로 각각 제조업 전체의 4 배, 2 배 수준인 1.6%, 0.8%임
  - 이는 시설 투자에 따른 외화 부채가 많은 산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 다음으로 철강 산업이 0.7%이고, 환차손이 가장 작은 업종은 기계와 자동차 산업임

2) 여기서 환차손은 환차익을 차감한 순환차손을 의미함

<96년 업종별 매출액 대비 환차손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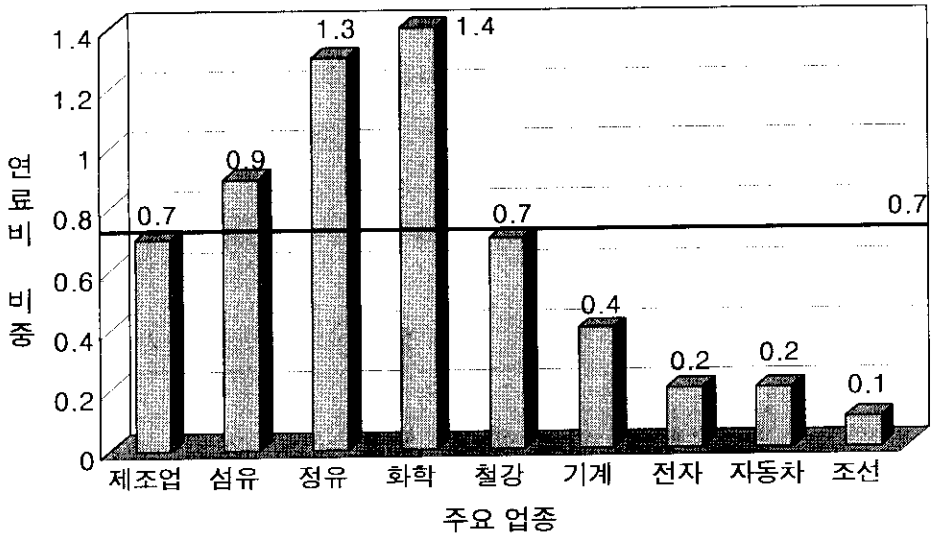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8
주: 굵은 선은 조사 대상 산업의 평균치임

연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화학 산업이고, 제일 낮은 업종은 조선 산업임

○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 대비 연료비 비중은 0.7% 정도임**

- 연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화학 산업으로 1.4%이고, 그 다음은 1.3%를 기록한 정유 산업임
  · 이는 이들 산업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기 때문임
- 그밖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인 섬유 산업이 0.9%, 철강 산업이 0.7%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연료비 비중이 낮은 산업은 전자, 자동차 및 조선 산업 등으로 나타남

<96년 업종별 매출액 대비 연료비 비중 비교>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8, 통계청, 「광공업 통계 조사 보고서」, 1997. 4
주: 굵은 선은 조사 대상 산업 평균치임

2. 업종별 비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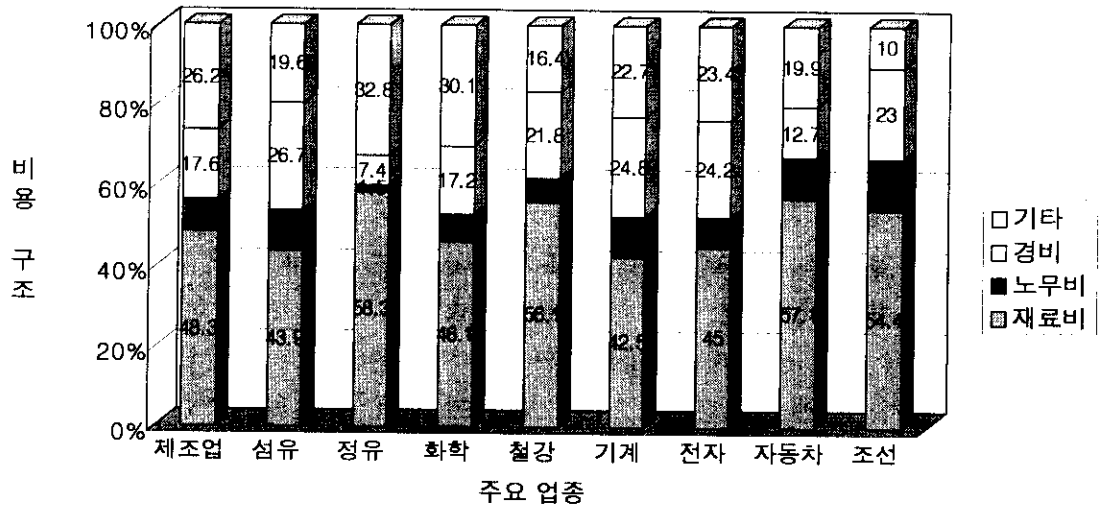
재료비는 정유 산업, 노무비는 조선 산업, 경비는 섬유 산업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전체의 비용 구조는 재료비가 48.3%, 노무비가 7.9%, 그리고 경비가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정유 산업으로 58.3%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제품 생산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임
  - 재료비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기계 산업으로 42.5%를 기록하였음
- 노무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조선 산업으로 12.6%이며, 이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임
  - 노무비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1.5%를 기록한 정유 산업이며, 이는 기계화율이 높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임

- 경비 비중이 제일 높은 업종은 섬유 산업(26.7%)이며, 제일 낮은 업종은 정유 산업(7.4%)임
  · 섬유 산업의 경우 판매 및 일반 관리비 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데 기인하고 있음

<96년 업종별 매출액 대비 비용 구조 비교>



자료: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1997. 8.

주: 1) 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직간접으로 투입되는 재료의 비용
2) 노무비는 제품 제조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공장 종업원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상여 등임
3) 경비에는 복리 후생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구 개발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기타에는 총제조 비용을 제외한 매출 원가 및 매출 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음

Ⅱ. 비용 상승 요인에 따른 업종별 영향 평가

○ 제조업의 98년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는 96년에 비해 무려 86% 증가한 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98년 금리, 환율 및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16조 6,302억 원에 이름. 이중 금리로 인한 추가 부담이 전체의 47.3%에 달함. 추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업종은 전자 산업으로 3조 631억 원, 가장 작은 업종은 기계 산업으로 6,170억 원으로 나타남

○ 98년 금리는 연평균 18% 정도로 전망돼 96년 11.9%에 비해 51.3% 상승했음. 이로 인한 제조업 전체의 금융 비용 상승 효과는 금액 기준 7조 8,662억 원으로 추정됨. 업종별로는 화학 산업이 1조 813억 원, 자동차 산업이 7,958억 원을 추가 비용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98년 연평균 환율은 1415원/달러로 96년 804.4원/달러에 비해 75.9%가 평가절하되었음.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은 제조업 전체 기준 6조 2,283억 원의 추가 환차손을 발생시킬 것임. 환차손이 가장 큰 업종은 외화 부채가 많은 전자 산업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2조 7,621억 원임

○ 98년 국내 유가는 경유와 B-C유를 기준으로 96년에 비해 95.1%가 상승했고, 제조업 전체의 연료비 추가 상승분은 0.7%로 2조 5,357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함. 연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화학 및 정유 산업은 국내 유가 상승으로 각각 4,662억 원, 3,023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임

1. 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대 효과

○ 금리 상승은 연평균 회사채 금리가 96년 11.9%로부터 98년 18%로 변동되는 것을 가정함
- 즉, 동기간중 금리가 51.3% 상승하였음

○ 금리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전체의 금융 비용 상승 효과는 비용 증가분이 96년 대비 2.2%로 금액 기준 7조 8,662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 비중 증가분이 가장 높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 비용 부담이 높은 업종은 화학, 자동차, 섬유 산업임

은 산업은 화학 산업임

- 비중 증가분 3.0%로 인해 추가 부담 금액은 1조 813억 원인 것으로 분석됨

- 그 밖에 금융 비용 비중 증가분이 높은 산업은 자동차, 섬유, 철강 산업 등으로 나타남

-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자동차 산업은 7,958억 원, 섬유 산업은 6,389억 원, 철강 산업은 4,969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금융비용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가 가장 낮은 산업은 기계 산업이며, 추가 부담 금액은 3,190억 원으로 나타났음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비용 상승 효과>

(단위: %, 억 원)

	96년 금융 비용	금융비용 비중	금리 상승률	금융 비용 상승 효과	
				비중 증가분	금액
제조업	153,337	4.3		**2.2**	**78,662**
섬유	12,454	5.5		**2.8**	**6,389**
정유	8,586	3.6		**1.8**	**4,405**
화학	21,077	5.9		**3.0**	**10,813**
철강	9,687	4.2	51.3	**2.2**	**4,969**
기계	6,218	3.4		**1.7**	**3,190**
전자	7,454	2.2		**1.1**	**3,824**
자동차	15,512	3.6		**1.8**	**7,958**
조선	8,906	5.5		**2.8**	**4,569**

자료: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1997. 8.(96년 금융 비용)

주: 1) 금융 비용=지급 이자와 할인료+회사채 이자-수입 이자

2) 실제 총 부채 규모의 증감으로 인한 영향은 반영치 못함

2. 환율 절하로 인한 비용 증대 효과

○ **환율 상승은 연평균 환율이 96년 804.4원/달러에서 98년 1415원/달러로 변동되는 것으로 가정함**

- 동기간중 75.9% 상승 기준으로 환율 상승 효과를 계산하였음

외화 부채의 비중이 높은 전자, 정유, 철강 산업은 환율 절상에 따른 환차손이 타산업에 비해 많이 발생함

○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증가분은 제조업 전체의 경우, 96년 매출액 대비 1.7%로 6조 2,283억 원 정도를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됨**

- 환차손이 가장 크게 증가할 업종은 외화 차입이 많음 전자 산업임
  - 추가 비중 증가분이 96년 매출액 대비 8.1%로 2조 7,261억 원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비용>

(단위: %, 억 원)

	96년 환차손	환차손 비중	환율 상승률	환차손 비용 상승 효과			
				비중 증가분	금액	환율 조정차 상각	합계
제조업	13,731	0.4		**0.3**	**10,422**	**51,861**	**62,283**
섬유	959	0.4		**0.3**	**722**	**2,680**	**3,402**
정유	3,876	1.6		**1.2**	**2,942**	**4,553**	**7,495**
화학	961	0.3		**0.2**	**729**	**3,284**	**4,013**
철강	1,681	0.7	75.9	**0.5**	**1,276**	**5,823**	**7,099**
기계	178	0.1		**0.1**	**135**	**2,196**	**2,331**
전자	771	0.2		**0.2**	**585**	**26,676**	**27,261**
자동차	608	0.1		**0.1**	**461**	**3,868**	**4,329**
조선	1,224	0.8		**0.6**	**929**	**4,513**	**5,442**

자료: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1997. 8.(96년 환차손)

주: 환율 조정차 상각은 장기 외화 부채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을 5년 기준으로 상각한 결과임

- 다음으로 외화 자산보다 외화 부채가 많은 정유 업종이 7,495억 원에 이르고 있음
- 그밖에 철강, 조선 산업이 환차손 증가분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철강 산업은 7,099억 원, 조선 산업은 5,442억 원의 추가 환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설비 투자로 인해 외화 부채가 타 업종에 비해 많기 때문임
-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비중이 낮은 업종은 섬유, 기계, 자동차 산업으로 추가 비중 상승분이 1% 내외로 나타남
- 즉, 원화 평가 절하로 인한 환차손 비용 상승 효과가 큰 업종들은 전자, 정유, 철강, 조선 산업이고, 작은 업종들은 섬유, 기계, 자동차 산업임

3.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대 효과

○ 유가 상승은 경유와 B-C유의 96년 12월~97년 12월 중 정유사 세후 판매 가격 변동분을 기준으로 함

- 국제 원유가 안정으로 이 가격이 98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을 가정함
- 동기간중 95.1% 상승 기준으로 국내 유가 상승 효과를 계산하였음

연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화학 및 정유 산업

○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유 도입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전체의 연료비 추가 상승분은 2조 5,357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조사됨

- 연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화학 및 정유 산업은 국내 유가 상승으로 각각 4,662억 원, 3,023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이는 화학 및 정유 산업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多소비형 업종이기 때문임

- 다음으로 섬유와 철강 산업의 연료비 비중 증가가 높게 나타남
  - 섬유 산업이 2,049억 원, 철강 산업이 1,413억 원의 추가 비용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연료비 비중이 가장 낮은 조선 산업은 국내 유가 상승으로 176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됨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효과>

(단위: %, 억 원)

	96년 연료비	연료비 비중	유가 상승률	연료비 상승 효과	
				비중 증가분	금액
제조업	26,664	0.7		**0.7**	**25,357**
섬유	2,155	0.9		**0.9**	**2,049**
정유	31,79	1.3		**1.2**	**3,023**
화학	4,902	1.4		**1.3**	**4,662**
철강	1,486	0.7	95.1	**0.7**	**1,413**
기계	682	0.4		**0.4**	**649**
전자	575	0.2		**0.2**	**547**
자동차	836	0.2		**0.2**	**795**
조선	185	0.1		**0.1**	**176**

자료: 통계청, 「광공업 통계 조사 보고서」, 1997. 4.(96년 연료비)
주: 실제 연료 사용량의 증감으로 인한 영향은 반영치 못함

4. 종합 영향 평가

○ **금리, 환율 및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인해 98년에 국내 제조업은 16조 6,302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조업의 98년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의 합계는 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제조업의 96년 금융 비용, 환차손, 연료비가 19

금리, 환율,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업종은 전자, 화학, 정유 산업임

조 3,700여억 원에 비해 무려 86%가 증가한 것임

-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업종은 외화 부채가 많은 전자 산업임
  - 98년에 3조 631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 합계는 4조 432억 원 정도로 추정됨
- 다음으로는 금융 비용과 연료비 비중이 높은 화학 산업이 1조 9,488억 원을 추가 부담해 총합계는 4조 6,428억 원에 이를 전망
- 그밖에 정유,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이 많은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정유 산업은 1조 4,923억 원, 철강 산업은 1조 3,481억 원, 자동차 산업은 1조 3,082억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업종은 기계 산업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6,170억 원에 불과할 것임
  - 조선 산업, 섬유 산업도 추가 부담 비용이 각각 1조, 1조 1,840억 원에 그쳐 금리, 환율 및 국내 유가 상승에 덜 영향받는 산업으로 분석됨

<1998년 예상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

(단위: 억 원)

	금융 비용	환차손	연료비	합계
제조업	231,999(78,662)	76,014(62,283)	52,021(25,357)	360,034(166,302)
섬유	18,843(6,389)	4,361(3,402)	4,204(2,049)	27,408(11,840)
정유	12,991(4,405)	11,371(7,495)	6,202(3,023)	30,564(14,923)
화학	31,890(10,813)	4,974(4,013)	9,564(4,662)	46,428(19,488)
철강	14,656(4,969)	8,780(7,099)	2,899(1,413)	26,335(13,481)
기계	9,408(3,190)	2,509(2,331)	1,331(649)	32,248(6,170)
전자	11,278(3,824)	28,032(27,261)	1,122(547)	40,432(30,631)
자동차	23,470(7,958)	4,937(4,329)	1,631(795)	30,028(13,082)
조선	13,475(4,569)	5,737(5,442)	361(176)	19,573(10,187)

주: ( )내는 96년 대비 추가 비용 부담액임

Ⅲ. 98년도 업종별 매출액 전망 및 비용 상승 영향

○ 98년 제조업 전체 매출액은 96년 대비 25.9% 증가한 453조 원 정도로 추정됨. 제조업 전체의 내수 및 수출 증가율은 96년 대비 각각 2.1%, 96.2% 정도로 추정됨. 업종별로 볼 때 IMF 체제 영향으로 내수는 둔화내지는 감소, 수출은 환율 상승에 따라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됨

○ 업종별로는 정유 산업 54.4%, 전자 산업 44.1%, 화학 산업 43.8% 정도의 매출액 증가가 예상됨. 반면에 자동차는 4.4% 감소가 예상됨

○ 98년 예상 매출액 대비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 비중은 96년의 5.4%로부터 7.9%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는 98년 매출액이 25.9%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 비하여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는 8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내수 부진이 예상되는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 96년에 비해 매출액 대비 추가 비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채산성 악화 정도가 제일 심함. 이에 반해 추가 비용 상승이 낮은 업종은 수출 증대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화학, 정유, 전자 업종은 채산성이 호전될 것으로 보임

98년 매출액은 높은 수출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96년 대비 25.9% 증가에 그침

○ **98년도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 세 단계의 과정이 필요함**

- 먼저 각 업종별로 96년 전체 매출액을 수출 비중에 따라 내수 부문과 수출 부문으로 구분함
- 두 번째로 96년 내수 매출액에 2 년간 내수 증가율을, 수출 매출액에 2 년간 수출 증가율과 수출 제품 가격 하락을 반영한 환율 상승률을 적용하여 98년 예상 내수 매출액과 수출 매출액을 추정함
- 세 번째로 추정된 내수 매출액과 수출 매출액을 합산하여 98년 예상 총 매출액을 계산함

○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내수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은 각각 96년 대비 2.1%와 96.2%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 내수는 IMF 한파로 인한 총 소비의 감소 영향 때문이며, 수출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임

98년 각 업종별 내수는 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수출은 증가가 예상됨

- 업종별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내수는 증가폭이 작아지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수출은 어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내수 부문에서는 자동차와 기계 산업이 제일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각각 96년 대비 35.5%와 16.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 부문에서는 97년에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화학과 정유 산업이 96년 대비 3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유 산업의 매출 증가율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 자동차는 매출이 감소

○ **내수 및 수출 증가율을 적용하여 전체 제조업의 98년 예상 매출액을 계산하면 96년 대비 25.9% 증가한 453조 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 매출 증가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정유 산업으로 54.4%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가장 작은 업종은 자동차 산업으로 4.4% 감소가 예상됨
  - 정유 산업의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내수 가격 상승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자동차 산업은 내수가 96~98년 기간 동안 35.5%나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화학 산업은 54.4%, 전자 산업은 44.1%, 섬유 42.6% 정도의 높은 매출 증가가 각각 예상됨
  - 이들 산업은 수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은 데에 기인함

<1998년 예상 매출액 전망>

(단위: %, 억 원)

	1996			1998		
	수출	내수	총매출액	수출	내수	총매출액
제조업	970,348	2,629,931	3,600,279	**1,904,590(96.2)**	**2,685,160(2.1)**	**4,534,521(25.9)**
섬유	142,459	84,787	227,246	**235,117(65.0)**	**89,026(5.0)**	**324,143(42.6)**
정유	30,648	208,857	239,505	**65,508(113.7)**	**304,388(4.1)**	**369,891(54.4)**
화학	113,340	241,375	354,715	**229,745(102.7)**	**280,236(16.1)**	**509,981(43.8)**
철강	70,626	157,750	228,376	**130,403(84.6)**	**154,122(-2.3)**	**284,525(24.6)**
기계	70,224	113,050	183,274	**117,512(67.3)**	**94,397(-16.5)**	**211,909(15.0)**
전자	208,526	125,650	334,176	**361,075(73.1)**	**120,410(-4.3)**	**481,545(44.1)**
자동차	95,321	341,102	436,423	**197,154(106.8)**	**220,011(-35.5)**	**417,165(-4.4)**
조선	57,354	103,189	160,543	**107,141(86.8)**	**109,587(1.0)**	**216,728(35.0)**

자료: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1997. 8.(96년 총 매출액)

주: 1) 98년 수출 매출액은 수출 증가율에다가 환율 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 환율 상승률은 수출 단가의 30% 하락을 적용한 53.1%임(조선은 환율 상승분 전체인 75.9%, 자동차는 12%의 수출 단가 하락을 전제로 66.8%를 적용)

2) 정유 산업의 경우 제품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내수 매출액 계산

3) ( )안은 96년 대비 수출 증가율, 내수 증가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임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 부담이 제일 큰 업종은 섬유 산업이며, 가장 작은 업종은 전자 산업임

○ **98년도 제조업의 금융 비용, 환차손 및 연료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은 96년의 5.4%에서 7.9%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분석 대상 전업종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 매출액 대비 연료비, 환차손, 금융 비용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이 높은 업종은 조선, 화학, 철강 산업순임
-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 96년에 비해 매출액 추가 비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이들 업종에서는 타산업에 비해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산업은 금융 비용이 높은 상태에서 내수 축소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철강은 여기에다 외화 부채가 많아 환차손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매출액 대비 비용 상승이 낮은 업종은 화학, 정유, 전자 업종임
  - 이들 업종에서는 타산업에 비해 채산성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임
  - 이들 업종은 환차손과 연료비 등 비용 상승이 크지만 정유는 국내 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내수 매출 증가, 화학과 전자는 수출 매출의 큰 폭 증가로 매출액 대비 비용 상승 효과는 적게 나타남

<98년도 업종별 비용 구조 분석>

(단위: %, 억 원)

	예상 총매출액(A)	주요 비용 상승				
		연료비 (B)	환차손 (C)	금융비용 (D)	종합 (B+C+D)	비중 (B+C+D)/A
제조업	4,534,521	52,021	76,014	231,999	360,034	**7.9(5.4)**
섬유	324,143	4,204	4,361	18,843	27,408	**8.3(6.0)**
정유	369,891	6,202	11,371	12,991	30,564	**8.4(6.5)**
화학	509,981	9,564	4,974	31,890	46,428	**9.0(7.6)**
철강	284,525	2,899	8,780	14,656	26,325	**9.1(5.6)**
기계	211,909	1,331	2,509	9,408	13,248	**6.1(3.9)**
전자	481,545	1,122	23,055	11,278	35,455	**7.4(2.6)**
자동차	417,165	1,631	4,937	23,470	30,038	**7.2(3.9)**
조선	216,728	361	5,737	13,475	19,573	**9.0(6.4)**

주: 1) ( )내는 1996년 비중임

2) 외화 부채가 많은 업종의 경우 달러 이자 지급으로 인한 환차손을 감안

Ⅳ. 시사점 및 대책

○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 기준 수출 매출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금융 비용 상승, 환차손, 연료비 상승 등 비용 상승 요인이 커 환율이 안정되어 있던 96년에 비하여 더 많은 업종에서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즉 98년 매출은 25.9% 증가가 예상된 반면 금융 비용, 환차손, 연료비 비용은 86%나 증가해 매출에 비해 증가율이 3.3 배에 이름

○ 금리, 환율, 국내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요인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 효율적인 조직 구축, 경비 축소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

○ 업종별로는 채산성 악화의 요인이 다름에 따라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 금융 비용 상승 요인이 큰 섬유나 화학, 자동차 업종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 원금의 조속한 상환 대책을 수립해야함. 정유, 전자 등 환차손 비용 상승 요인이 큰 업종은 자산 매각, 수출 대금을 이용한 부채 결제 등으로 외화 부채의 조속한 상환 대책이 필요. 연료비 비중이 높은 정유나 화학 업종은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저에너지 효율 공정 개발 등 에너지 사용 절감 대책 수립 필요.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 전자 등 산업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 확대 필요

환차손, 금융 비용 등 영업외 비용 상승이 채산성 악화의 주요인

○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되어 있던 96년에 비하여 대부분의 업종이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즉 98년 매출은 25.9% 증가로 예상되는 데에 비하여 금융 비용, 환차손, 연료비는 86%나 증가해 매출에 비해 증가율이 3.3 배에 이름.
- 특히, 금융 비용 상승은 내수 비중이 높은 산업내 부채 비율이 높은 업체들의 도산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대에 힘입어 채산성이 호전될 것으로 보임

○ **전업종에 걸쳐서 채산성 악화에 대비하여 생산**

전업종에 걸쳐서 생산성 향상, 경비 축소 등 비용 절감 노력 필요

성 향상, 효율적인 조직 구축, 경비 축소 등 비용 절감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정보화, 하청 생산의 경쟁시스템 도입 등 산업 생산 시스템 자체가 보다 저비용 구조로 바뀌어 나가야 함

<업종별 금융비용, 환차손 및 국내 유가의 영향 정도>

	금융 비용	환차손	국내 유가
섬유	■	○	○
정유	○	■	■
화학	■	○	■
철강	○	○	○
기계	△	△	○
전자	△	■	△
자동차	■	○	○
조선	○	○	△

주: ■는 영향이 매우 큼, ○는 영향이 보통, △는 영향이 작음

채산성 악화 요인에 따라서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

○ 업종별로는 채산성 악화의 요인이 다름에 따라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금융 비용 부문이 비용 상승 요인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섬유나 화학 산업, 자동차 산업이 가장 불리함
  - 금융 비용이 가장 높은 이들 업종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해외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 원금의 조속한 상환 대책을 수립해야함
- 정유, 전자 등 환차손 비용이 가장 큰 업종은 자산 매각, 수출 대금을 이용한 부채 결제 등으로 외화 부채의 조속한 상환을 통해 환차손을 최대한 축소해야함
- 연료비 비중이 높은 정유나 화학 업종은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저에너지 효율 공정 개발 등 에너지 사용 절감 대책 수립이 필요함

- 그러나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 전자 등 산업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 확대 전략 필요
  · 그동안 가격 경쟁력에서 개도국들에게 밀려 수출이 감소했던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노력과 함께 시장 다변화도 확대시켜 나가야 함

<업종별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

가장 중요한 요인	해당 업종	대 책
금융 비용	섬유, 화학, 자동차	- 채무 원금의 조속한 상환 대책 수립 · 자산 매각 등
환차손 비용	정유, 전자	- 외화 부채의 조속한 상환을 통해 환차손을 최대한 축소 · 자산 매각, 수출 대금을 이용한 부채 결제
연료비 비용	정유, 화학	- 에너지 사용 절감 대책 수립 ·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저에너지 효율 공정 개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업종	철강, 기계, 조선	- 적극적인 수출 증대 전략 수립 · 선진국 시장 진출 확대, 수출 지역 다변화

(김선덕, 윤창호, 정희식)